미얀마 평화 위해 입국 신청한 스님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사노위 지몽·혜도·종수 스님
4월 1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미얀마 특별입국 신청서 접수
부처님 성지 쉐라곤 파고다서
"온 몸 던져 평화 발원하겠다"

"부처님의 성지 쉐다곤 파고다에서 온몸을 던져 평화를 발원하겠습니다. 군인이 든 총이 연꽃으로 화하고 고통의 현장이 다시 자비의 세상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미얀마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촉발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어린아이까지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사태가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스님들이 미얀마를 직접 방문해 평화를 발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4월 1일 주한미얀마대사관에 '미얀마에 평화가 오길 기원하는 기도를 위한 특별입국'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별입국을 신청한 스님들은 위원장 지몽 스님과 위원 혜도 스님, 종수 스님 등 세명이다.

쿠데타 발생 이후 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미얀마 평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희생자 추모기도, 오체투지기도회 등을 이어왔지만, 한국에서의 활동은 한계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직접 고통의 현장을 찾기로 한 것.

스님들은 부처님 성지인 쉐다곤 파고다에서 미얀마 평화를 발원하는 기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쉐다곤 파고다는 부처님 생존시 머리카락이 봉안된 곳으로, 미얀마인들은 물론 전세계 불자들이 참배를 위해 방문하는 상징적인 곳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4월 1일 미얀마 특별입국 신청서를 접수했다.

스님들은 특별입국 신청서 접수에 앞서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국 취지를 밝혔다. 특히 "미얀마 입국신청은 단순한 시도의 차원이 아니라 신중한 논의를 거쳐, 확고한 의지를 모은 결과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고 미얀마 평화를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밝혔다.

지몽 스님은 "그 어떤 나라보다 자비롭고 평화로워야 할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가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가득차 있다"며 "극도의 공포와 슬픔, 분노, 고립감에 휩싸여야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미얀마 국민들을 생각하면 수행자로서 자책감에 숨을 쉬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스님은 "UN이 한낱 국제시민단체로서 역할에만 머무르는 실정에 미얀마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은 비탄에 빠져 있다"며 "미얀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온몸이 부서지는 날까지 평화를 발원하는 기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얀마대사관이 수행자들의 평화기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이라 믿기에, 가장 빠른 시간 내 입국이 가능하도록 허가해 달라"며 "한국 정부 역시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입장을 이해하지만 불교수행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외면할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니 이해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혜도 스님도 "쉐다곤 파고다에서 올리는 평화기도가 미얀마의 모든 분들이 적의를 멈추고 군인과 노동자, 시민 모두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군인이 손에 든 총이 연꽃으로 바뀌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무릎이 닳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올리고자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지몽 스님이 대사관에 신청서를 전달하는 동안, 스님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미얀마 평화를 발원했다.

한편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를 발원하는 한국불교계의 움직임도 큰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매주 토요일 샤카디타코리아, 불교여성개발원과 함께 서울지역 사찰에서 미얀마 평화를 위한 기도를 진행하는 한편, 미얀마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도 진행 중이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얀마 평화를 기원하는 챌린지를 진행해 불자들의 염원을 모아내고 있으며, 태고종 국제구호단체인 (사)나누우리(이사장 도산)도 미얀마 민주화 항쟁 지지운동의 일환으로 세손가락 경례뱃지를 제작해 나눔을 통한 모금에 착수했다.

고산당 혜원대종사 영결식…'빛을 잃다'

3월 27일 쌍계사 도원암 앞 광장서

우중에도 사부대중 모여 애도
"가르침 따라 정진 이어 갈 것"

쌍계총림 방장 고산당 혜원 대종사의 영결법요식이 3월 27일 쌍계사 도원암 앞 광장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은 명종 5타로 시작해 △삼귀의 △동주 스님, 선훈 스님의 영결법요 △문도대표의 헌다 및 헌향 △한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행장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대중들은 고산 스님의 육성 법문을 들으며 끝까지 정진을 당부한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영결사에서 "언제나 멈추지 않는 법륜처럼 손 안에서 돌아가던 큰 염주가 이제 큰스님을 따라 적정부동(寂靜不動)의 경계에 들었다"며 "대종사님께서 남겨 주신 염주는 저희들에게 수행과 전법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무언의 부촉일 것이다. 저희들은 대종사님께서 부모미생전의 소식을 다시 세상에 펼칠 인연을 일구월심 기다리며 오늘의 아쉬움을 달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은 "이제 자애스러운 모습과 대방무외(太方無外)한 선지(禪旨)와 대기대용(大機大用)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누구에게 생사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물어야 하고 격외의 진수를 배워야 합니까?"며 안타까워했다.


쌍계총림 방장 고산당 혜원 대종사의 영결법요식이 3월 27일 쌍계사 도원암 앞 광장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이어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과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영진 스님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조사도 이어졌으며 문도를 대표해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참석 해 준 모든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오직 정진으로 스님의 은혜를 갚을 것이다"고 말했다.

영결식이 마치자 지리산을 덮고 있던 봄꽃마저 색을 잃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만장기를 든 사부대중은 법구 이운에 앞서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으며, 법구는 고산대종사가 평소 아꼈던 쌍계사 차시배지와 콩밭, 꽃길, 목암마을 등을 지나 마지막으로 연화대에 안치됐다. 거화의식이 진행되자 대중들은 오열했고 "큰 스님 불들어갑니다"며 소리쳤고 대자비심으로 속환사바 해 불일(佛日)을 밝혀 줄 것을 기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KCRP, 환경문제 각 종교계 공동 대처 결의

3월 25일 정기총회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원행, 이하 KCRP)가 올해 생태·환경 문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KCRP는 3월 25일 한국의 집에서 공동회장단 회의 및 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생태·환경 문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종교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 종교계는 환경문제에 공동대처키로 결의하고, KCRP 올해 사업에 생태·환경 보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KCRP 대표회장 원행 스님과 각종교 지도자들.

또 남북평화를 촉구하는 KCRP의 서신이 WCRP를 통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날 공동회장단 회의에는 KCRP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공동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천도교 송범두 천도교 교령, 김희중 천주교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개회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인 각 종교 수장들께서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을 희망의 길로 이끌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져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민추본, 통일기금 마련 위해 후원사찰 협약

3월 26일 인천 능인사 첫 협약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가 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사찰 확대에 나선다.

민추본은 3월 26일 인천 능인사(주지 지상)에서 첫 후원사찰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사업 기금을 적립해 안정적인 통일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민추본의 제1호 후원사찰인 능인사는 사무총장 지상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첫 후원사찰로 포문을 여는 한편, 후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본부장 월우 스님은 "후원 사찰·회원 조직 확대는 민족 화해와 통일정토 구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능인사를 시작으로 통일정토를 향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원력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상 스님은 "한반도 상황이 장기간 경색돼 있어 원활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내실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며 "후원사찰·회원의 조직화를 통해 민추본이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佛性 受戒 共同體
불성의 자리에서
수계 공동체를 이루는
金剛戒壇
보살계산림
靈鷲叢林 通度寺
세계문화유산 통도사는 신라 자장율사께서
부처님 금란가사와 진신사리를 봉안해 모신
금강계단을 수계 증명단으로 삼고
계율전수를 통해 부처님 정법의 맥을 이어 온
계율근본 도량입니다.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되새기고
부처님 지혜광명을 잇고자
신축년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법회를 봉행하오니
널리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을 맺는
인연공덕 되소서.
입재 2021년 4월 16일(음 3.5) 금요일
회향 2021년 4월 18일(음 3.7) 일요일
※ 보살계산림은 매일 9시 30분에 봉행되며, 오후에는 없습니다.
동참금 | 5만원 접수처 | 화엄전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차량안내 | 부산 온천장 지하철 1번 출구 앞 오전 8시~9시